공포영화 무더위를 식힌다

여름은 뭐니뭐니해도
공포 영화의 계절이다.
지난해 '고死 : 피의 중간고사'
한편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공포영화들이
잇따라 개봉한다.
올 여름 첫 공포영화였던
'여고괴담' 다섯번째 시리즈가
평단과 흥행면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세 편의 공포영화가 동시에 관객
들을 찾는다.

▲불신지옥

탄탄한 스토리와 긴장감 넘치는 촬영으로 시사회 때 평단으로부터 '한국형 공포 영화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작품이다.

종교에 집착하는 엄마와 살던 동생의 실종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희진은 고향으로 내려온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동분서주하는 희진과 달리, 엄마는 기도를 하면 소진이 돌아올 것이라며 교회에만 집착한다.

수사를 하던 태환은 희진의 동생 소진이 신들린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웃사람들에 의해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봉준호 감독의 조감독 출신인 이용주 감독의 데뷔작이다. '식객'의 남상미가 주연을 맡았으며 '7급 공무원' 등에서 감칠맛 나는 연기를 보여준 류승룡을 비롯, 김보연, 아역배우 심은경 등 연기력이 출중한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 다. 13일 개봉.

▲4교시 추리영역

'불신지옥'과 같은 날 개봉한 '4교시 추리영역'은 학원 공포물이다.

학교를 배경으로 주인공을 내세워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구조가 일본 인기 만화 '소년탐정 김전일'과 유사하다 '국민 남동생' 유승호와 신인여배우 강소라가 주연을 맡았으며 '베토벤 바이러스'에 출연했던 박철민·장석용 등이 조연으로 참여했다.

4교시 체육시간, 교실 한복판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모범생 정훈은 살인자 누명을 쓰게 된다.

위기에 몰린 정훈은 추리소설광인 같은 반 왕따 다정과 4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안에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요가학원

여배우들이 총출동하는 작품으로 현대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그린 영화다. 슈퍼우먼 증후군을 갖고 있는 효정, 요가 마스터 나니, 거울 중독증 환자 연주, 다이어트 강박증의 인순, 성형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유경, 비밀스러운 느낌의 선화 등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한다.

홈쇼핑 간판 쇼호스트 효정(유진)은 젊고 매력적인 후배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이한다. 점차 자신의 매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던 효정 앞에 학창시절 멸시의 대상이었던 선화(이영진)가 몰라보게 완벽한 미녀가 되어 나타난다. 그 비법은 간미희 요가학원에서 실시하는 비밀스런 심화훈련. 절대 미를 갖기 위해 요가학원을 찾은 다섯 명의 여자들은 수련을 받던 중 하나둘씩 기이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유진·차수연·박한별·조은지·김혜나·이영진 등이 출연한다. '여고괴담 3-여우 계단'을 만들었던 윤재연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20일 개봉한다.

/김미은기자 mekim@

새영화

아이스 에이지 3 : 공룡시대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애니메이션 '아이스 에이지'의 세번째 이야기다. 시리즈 최초로 3D 제작해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얼음이 녹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이겨낸 빙하기 친구들 매니, 엘리, 시드, 디에고. 공식 커플 매니와 엘리는 아기 맘모스 탄생 준비에 호들갑이고, 소외감을 느끼던 나무늘보 시드는 자신도 가

빙하기 동물친구들 공룡세계서 좌충우돌 3D 제작 화제

족을 갖겠단 욕심에 그만 공룡 알을 훔치고 만다.

지하 공룡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대형 사건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시드를 구하려는 빙하기 친구들은 얼음 속 신비한 야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스펙터클한 모험을 하게 된다.

말많고 화려한 액션을 자랑하는 무자비한 공룡 사냥꾼 애꾸눈 벅, 지하세계 최대 공룡 루디, 매니와 엘리의 2세, 식탐쟁이 다람쥐 스크랫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스크래티 등 3편에 등장하는 새로운 캐릭터가 흥미를 돋운다.

전편에 비해 액션신이 많이 강화하는 등 화려한 볼거리가 눈길을 끈다.

〈전체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